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육심원 '앙드레김 빌딩' 어떻게 바꿨을까 궁금

육심원 한국화가가는 이화여대 동양학과를 졸업한 '육심원 디자인'의 대표다. 스스로 가장 잘 알고 관심을 두었던 여성을 소재로 "이 세상 모든 여성은 공주가 될 권리가 있다"며 '세상의 모든 여자는 공주' '여자는 여자이기에 행복해야 한다'는 콘셉트와 도발적인 자신감으로 만화 기법을 접목한 파스텔 톤의 여성인물화를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회화로 쓰이면서 인지도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육 대표는 대중이 일상 속에서 접하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육심원 디자인을 설립해 패션·다이어리·달력·가방 등에 적용해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

어 모든 여성의 내면을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하려는 노력이 통했다.

그의 작품은 한 흡소빙 회사 광고와 TV 프로그램의 타이틀로도 등장하며 대중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이후 2014년 중국 선양 롯데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중국 칭다오의 만상성과 선양 중심부의 럭셔리 쇼핑몰 등을 비롯해 상하이 화이하이중루 명품백화점 해신광장 등 다양한 지역에 매장을 열어 사업을 확장했다.

또 2014년에는 MBC 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 작품이 등장해 주목받았다. 극중 교통사고로 유산하고 프랑스 유학을 떠난 김미영(장나라 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의 작가로 변신해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진다.

따뜻하고 소녀 감성 가득한 그림을 전시

하기 위해 미영은 개인 전시회를 연다. 이때 미영의 그림이 화면에 다수 등장하는데 육심원의 실제 그림이다. 방송 종료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누구의 작품이냐' '독특하다'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여성을 소재로 해 그림과 상품으로 재산을 축적한 육 대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빌딩(사진) 한 채를 2008년 3월 남편 정경일 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부부는 먼저 토지를 매입하고 약 2년 뒤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대지면적 234㎡(약 70.78평)·연면적 581.81㎡(약 175.99평) 규모다.

갤러리에이엠 대표를 맡은 남편 정 씨는 회사 명의로 2006년 2월 자흥빌딩을 매입



육심원

한국화가·육심원 디자인 대표

육심원 디자인

했다. 육 대표는 갤러리에이엠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금은 철거 후 신축 빌딩을 짓는데 매입 당시 건물주 이력이 부동산 업계에서 이슈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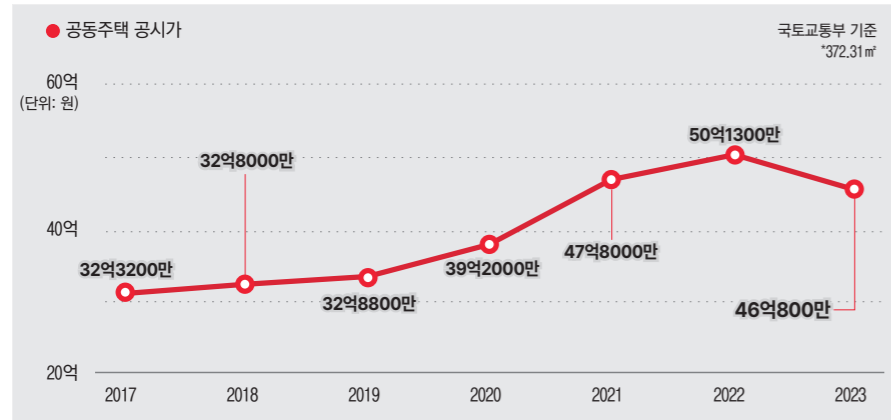
2001년 7월 패션 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본명 김봉남)이 자흥빌딩을 매입해 쇼룸 겸 작업실로 사용했다. 별세 이후 2010

년 그의 아들 김중도 씨에게 유증됐고 2014년 10월 건강기능식품 기업 내츨엔도텍에게 180억 원에 매각됐다. 매물로 나와 갤러리에이엠이 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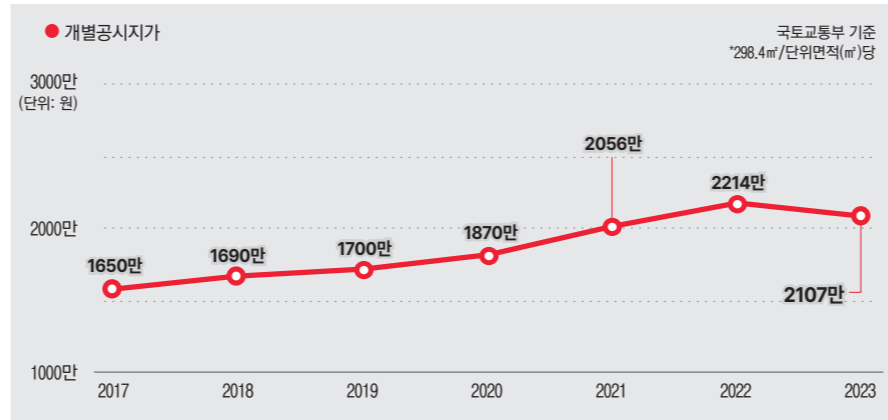
갤러리에이엠 소유 빌딩이 완공되면 육 대표 소유 빌딩과 합쳐 총 300억 원의 가치가 예상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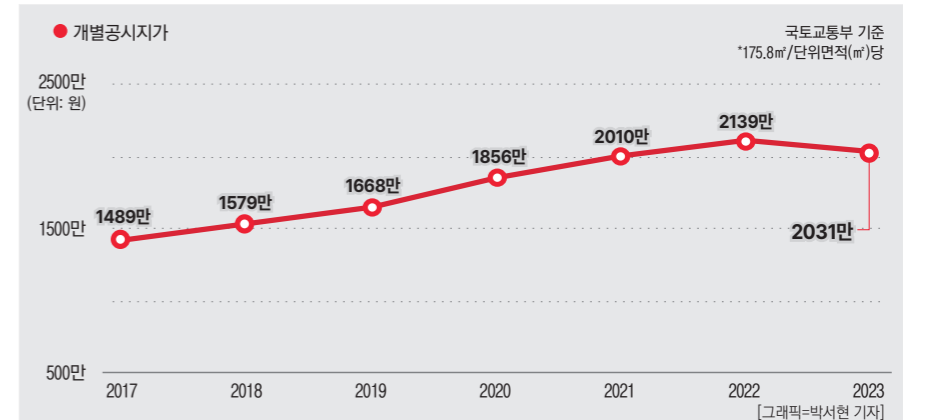
## 압구정하이츠파크



## 빌딩



## 빌딩



## 구분능

현)희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부친인 구분능 희성그룹 회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해 미국 시카고 지사장·해외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 1987년 금성사 이사회를 거쳐 희성금속 감사로 맡으며 희성 브랜드에 발을 들였다. 이 외에도 LG전자 이사, 희성금속 감사·부회장, 상능기업 부사장 등을 지냈다. 제19대·20대·21대까지 오랜 기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맡았던 구 회장은 야구선수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학업에 집중하라는 아버지의 반대로 경남고에 입학하면서 선수 생활을 접었지만 경남중 시절까지 주전 외야수를 맡아 활약



했다. 짧은 선수 생활이었지만 야구를 진심으로 좋아해 해박한 지식과 애정을 가졌다. 총재 시절 전국의 야구장 수를 대폭 늘리고 'KBO' 브랜드를 확장한 것은 물론 프로야구 9·10구단 창단 문제를 큰 잡음 없이 이끌며 프로야구 리그 인기몰이에 기여

## 박정수

현)배우



박정수는 덕성여대 재학 시절 MBC 공채 탤런트에 뽑힌 후 각종 신인연기상을 휩쓸 정도로 촉망받는 세내기 유망주였다. 하지만 데뷔 3년 차였던 1975년 결혼을 계기로 전격 은퇴를 선언하고 자녀를 키우며 전업 주부의 삶을 살았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1989년 MBC 미니시리즈 '상처'로 복귀했다. 이 작품으로 14년의 공백이 만개지지 않을 만큼 안정된 연기를 선보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한 번에 네다섯 편의 드라마에 동시 출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열심일었다. 남편과는 관계 악화로 1997년 합의 이혼을 했다. 대표작으로는 MBC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 윤도준

현)동화약품 회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경희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병원 의사였던 그는 2005년 동화약품 입사와 함께 부회장 직책을 맡으면서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8년에는 경영권을 완전히 물려받아 회장직에 오른 후 현재까지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의사 시절 대한정신약물학회 고문·이사장, 기분장애연구회 회장 등을 지내며 정신건강 분야에 집중했다. 동화약품에 몸담은 뒤 사업 다각화 일환으로 국내 척추 임플란트 기업인 메디세이의 지분을 매입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동화약품은 '부채표 가스활명수'와 '후시딘'



등으로 유명한 국내 최장수 제약사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회사' 등 기네스북 기록을 가졌다. 그는 부채표 가송재단 이사장을 맡아 윤광열 의학과·약학·약공로상·치과의료봉사상을 제정해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 남산·경복궁·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노후 주거환경 개선 물꼬

####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 안건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고도지구로 노후 주거환경에 불편을 감수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산과 시설물 등의 경관을 보호하면서 고도지구 내외개발격차 및 노후된 주거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추가 높이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당초 지형적 특성으로 높이가 완화가 어려웠던 다산동·회현동·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를 12m~16m로 추가 완화했으며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 20m를 적용토록 하였던 것을 24m로 추가 완화했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는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지난해 6월30일 북한산 고도지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

려해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처음으로 서촌 지역 일부를 20~24m로 완화하고 16m~18m로 변경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서울 주요 경관임을 고려해 남산의 남측 지역은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소월로 도로면 이하 범위 내에서, 북측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역세권 내 위치할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고 45m까지 높이를 완화가

가능하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서도 주민공람 당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높이 45m까지 완화 가능토록 한 것을 지역 여건을 고려해 역세권에서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추가했고 28m 이하 지역에서만 적용 가능토록 한 것을 20m 이하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리고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도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5m까지 높이를 완화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신설됐다.

관리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용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하여 총 8개소(9.23㎢)를 6개소(7.06㎢)로 정비한다. 경관보호 대상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오류·범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관리한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여러 여건 변화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신(新)고도지구 재정비안이 실현되면서 불편했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2월 중으로 실시하고 상반기 내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심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철거 작업 중인 기존 문경선 조령천 제2교.

국가철도공단

### 기존 문경선 구조물 본격 철거

#### 경상북도 문경시

국가철도공단 충청분부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기존 문경선(문경~마성역) 철거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문경선은 1969년 6월 탄광 영업을 위해 점촌역에서 문경역까지 건설된 철도 노선이었으나 탄광업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어 따라 1995년 4월1일 영업을 중지한 후 현재까지 방치돼 소방차량 등 대형 차량의 통행 불편과 지역단절을 초래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충청분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마원리·남호리·외여리 일원에 있는 6개소 철도구조물(교량·통로박스)을 본격 철거한다.

철거가 완료되면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이동 및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철도공단 충청분부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존 문경선을 조속히 철거해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